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8호 HYUNBULNEWS.COM 2026년 3월 4일(음력 1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선재 스님과 함께 "우리 모두 장금이"**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사찰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에게 전통 장 담그기를 배울 수 있는 행사가 2월 26일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장독 분양을 신청한 서울 시민들이 선재 스님(왼쪽)의 지도를 받아 장을 담갔다. 복지관장 정관 스님(가운데)과 정문헌 종로구청장(오른쪽)도 지역 아동과 함께 '장금이'로 변신했다. **임은호 기자**

## "옛 도량 홍매 총림을 이루었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3월 3일 동안거 해제 법어**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사진>가 3월 3일(음력 1월 15일) 불기 2569년 을사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법어를 내렸다.

성파 스님은 법어에서 "모두가 산문출입을 삼가며 오직 화두타파의 일념으로 정진해서 삼계대도사 사생자부의 안목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도다"라며 "이제 사생의 자비로운 어버이로 역량을 갖추고 산문을 나서게 되었으니 이는 만 중생의 복전이요 경하할 일"이라고 안거 대중의 정진을 치하했다.

이어 "외호대중의 공덕이 지대하다"고 격려하며 "세간의 여러 인연들이 영산(靈山)의 봄소식을 묻는다면 어찌 답하려 하는가? 그대의 걸망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수행을 점검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을사년 동안거 선사방함록(乙巳年冬安居 禪社芳啣錄)〉에 따르면 전국 93개 선원(총림 5곳, 비구 선원 61곳, 비구니 선원 27곳)에서 총 1792명(총림 203명, 비구 선원 1064명, 비구니 선원 525명)의 출가수행자들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정 · 총림 방장 해제 법어 5면〉

**여수령 기자**

# 불교 유아교육 산실 대자유치원 100년 원력

**2월 20일 제99회 졸업식 개최**
**1927년 개원…最古 불교유치원**
**9000여 명 졸업한 명문교육기관**
**문화유산 등재 예고, 새 100년 준비**





1927년 개원한 창원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이 2월 20일 제99회 졸업식을 봉행하고 7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왼쪽은 1928년 3월 22일 열린 마산 사립 배달유치원 제1회 졸업기념 사진.

**여수령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현존 불교유치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창원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이 제99회 졸업식을 봉행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개원 초기 기록물의 문화유산 등재를 앞둔 시점에 열린 졸업식이어서, 한국불교 유아교육 100년 역사와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상징적인 자리로 평가된다.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 부설 대자유치원은 2월 20일 제99회 졸업식을 열고 7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대자유치원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민족교육 운동과 맞닿아 있다. 양산 통도사가 운영하던 마산포교원의 배달학원과 마산 구락부가 경영하던 마산학원이 뜻을 모아 1927년 4월 5일 '마산 사립 배달유치원'을 개원했다. 당시 123명이 입학해 3개 반으로 운영됐다.

최근 연구에서는 설립 과정에 신간회 활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관여한 것도 확인됐다. 이형재, 최철룡(건국훈장 애족장), 명도석(건국훈장 애국장), 이상만(건국포장) 선생 등이 창립 이사로 참여해 유치원 운영을 이끌었다.

1940년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통도사가 인수하며 대자유치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해방과 전쟁, 산업화라는 격변기를 지나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의 전통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9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경남 지역의 명문 유아교육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월 12일에는 개원 초기의 기록물이 경상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돼 의미를 더했다. '대자유치원 기록물'은 1927년 개원 때부터 1945년까지 원아 모집·학사 운영·활동 모습 등을 담은 졸업생 명부·학사보고철·졸업앨범·개원 기념사진 등 8건, 31점이다.

경상남도는 "일제강점기 지역사회가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라고 평가했다. 불교계 유아교육의 출발과 지역 민족운동의 흐름을 동시에 증언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이날 졸업식에서 정법사 주지이자 대자유치원 이사장인 광우 스님은 "대자유치원은 유아 교육기관을 넘어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성과 지혜를 함께 키워온 수행 도량"이라며 "지혜와 복덕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것이 불교교육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영 대자유치원장은 "우리 유치원은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을 넘어 사랑과 배려, 감사의 마음을 배우는 삶의 첫 학교"라며 "학부모님들의 깊은 신뢰와 교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졸업이 가능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졸업장 수여는 원아 한 명 한 명의 장래 희망을 소개하며 진행됐다. 발레리나, 과학자, 소방관, 경찰, 판사, 수의사, 아이돌 등 아이들의 꿈이 발표될 때마다 학부모와 교직원은 큰 박수로 격려했다. 졸업생 전원에게는 이름이 새겨진 도장과 원석 단주가 전달돼 불연(佛緣)을 기념했다.

한편, 내년 제100회 졸업식과 개원 100주년을 앞둔 대자유치원은 1960년 이전 유치원 활동사진과 졸업증서, 졸업앨범, 상장 등 관련 기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 불교문화포털서 본지 기사 만난다

**현대불교신문 · 동국대 불교학술원, MOU 체결**



한명우 본지 대표이사(왼쪽)와 박인석 KB사업단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한국불교문화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한국불교문화포털'에서 현대불교신문 기사를 만날 수 있게 된다.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은 2월 26일 본지 사장실에서 '한국불교종합포털 뉴스보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포털'은 현재 베타 테스트 단계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3차 고도화 작업을 통해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3차 고도화 작업은 불교 현대사 기록 매체로서 가치를 지닌 불교계 주요 언론의 최신 뉴스를 포털에 뉴스 보드 형식으로 탑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협약 역시 고도화 작업 일환으로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현대불교신문의 모바일 홈페이지의 뉴스를 '한국불교문화포털'의 메인 페이지 '뉴스보드'에 주기적으로 수집·제공하게 된다. 포털에 탑재되는 교계 언론은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해 불교신문, 법보신문, BBS불교방송, BTN불교TV, 불교IN, 불광미디어 등 총 7곳이다.

박인석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단장은 "교계 언론의 뉴스콘텐츠들을 함께 제공하면 그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며 "협약 이후 개발 과정을 거쳐 3월 중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는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체결한 이번 협약으로 한국불교문화포털이 전 세계 불교를 대표하는 포털로 성장하길 바란다. 본지 역시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중일 기자**

육조정맥선원

생사해탈을 위한 '3년 결사 안거' 대봉행

부처님 열반후, 초유로 생사해탈의 각오로 수행하는 3년 결사가 92세이신 농선 대원 선사님께서 직접 죽비를 잡고 지도하시는 가운데 해남 실증선사에서 봉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제가 아닌, 목숨을 건 결사로 3년 동안 부모가 돌아 가셔도 출입하지 않겠다는 각오하에 이생에 반드시 생사해탈의 문을 넘고자 하는 대정진입니다.
농선 대원 선사님께서는 조계종 지혜제일이신 불조정맥 제77조 전강 영신 전법선사님께 인가를 받아 불조정맥 제78대 전법선사로 법맥을 이으신 분입니다.
선사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종로기원장을 지내신 소진추 거사님과 동아일보 편집국장 정봉진님의 모친이신 전대각월 보살님께서 이미 좌탈 입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수행자를 많이 배출하고자 이번 3년 결사를 봉행합니다.
출가 · 재가를 막론하고 이생에 생사대사의 해결을 발원하는 모든 불자 여러분들의 동참과 성원을 바랍니다.



실증선사 전경

입방요건 I 나이(30-60대 남·녀) /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분 제출서류 I 입방각서, 건강진단서 접수기간 I 2025.12.07-2028.12.07 문의 I 010-8670-1445